

5. 다음 장을 시작하며: 1부-구상과 결과

Beginning the Next Chapter: Part I - Outlines and Outcomes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도였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15절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대를 향해서 쫓아 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바울은 문자적인 의미대로 뒤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잊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가 견디어 왔던 고통의 긴 목록이 정확히 몇 차례 반복되어 일어났는지,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가 의도한 것은 그의 기억으로부터 고난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고난을 붙들지 않고, 그의 인생의 다음 장에 그 고통의 상황을 끌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바울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이면 좋을텐데’라는 말을 여러 경우에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을 생각해보아라.

- 상황 탓하기
 - 만약 난파되지 않았더라면
 - 만약 돌에 맞지 않았더라면
 - 만약 그 도시에서 위험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 만약 수감되지 않았더라면(빌1:12-19를 참고)
- 타인 탓하기
 - 만약 요한 마가가 첫 전도 여행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 만약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그의 조카를 데려가자고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 만약 다른 사역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 질투
 - 라이벌의식
 - 개인적 야망
 - 불성실
 - 문제 야기
 - (빌1:18을 참고)
- 자신 탓하기
 - 만약 내가 요한 마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면(행15:38)
 - 만약 내가 요한 마가와 동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토록 완강하지 않았더라면(행15:39)
 - 만약 내가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귀신을 내어쫓지 않았더라면(행16:18)
 - 만약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 받고 멸시 받지 않았더라면(살전2:2)

다른 사람과 상황을 불평하거나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놓지 못하는 대신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만약에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놓지 못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데 더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지금은 지난 어려움을 잊고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시간, 용기, 티슈 한 통, 기도, 제단 등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마쳤을 때, ‘...이면 좋을텐데’라고 하며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에, ‘만약 내가 이것을 한다면...’이라고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삶의 지난 장을 돌아보고 장에서 장으로의 전환의 시점에 주저하면서 인생의 다음 장에 관해 여러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때가 당신이 삶의 다음 장을 구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구상은 지침에 불과하다는 것, 그 장의 첫 도안을 위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종종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면서 당신의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아마도 매우 혁신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휴지 동안 발생한 신학적인 논란을 정리한 후에 삶의 두 번째 장을 구상하기 시작한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했던 모든 성읍(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포함하여)을 돌아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바나바는 동의하며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려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위에 언급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있는 바울의 원래의 ‘계획’을 살펴봐라.

-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계획 했었나? _____
-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가려고 계획 했었나? _____
-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계획 했었나? _____

이제,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보자.

- 바울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었나? (행16:10) _____
- 누구와 동행했는가? (행15:40) _____
- 어떤 일을 했는가? (행16:11-18:22) _____

3차 선교 여행(행20:16)을 마치고,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한 곳을 지나칠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돌아가려고 했다. 그 당시에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선교사인 바울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 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20:22-24다음 몇 절도 더 읽어봐라) 바울이 지지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해서 유연해져야 함을 인식하고, 간략히 향후 5년간의 삶을 기술하라.

아마도 당신의 구상에는 멋진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의 기대가 긍정적인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기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타 문화지역에 선교 임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에 첫 번째 임무를 주시며 당부하셨던 교육지침은 자세히 조명할 필요가 있다.

- 그들을 부르셨다(1절).
- 권능을 주셨다(1절).
-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기술했다(2-4절).
- 행동지침을 받았다.
- 어디로 갈지(5-6절)
- 무엇을 할지(7-8절)
- 무엇을 지참할지(혹은 지참하지 말아야 할지)(9-10절)
-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지(11-16절)
- 어떤 일이 일어날지(17-23절)
- 공회에 넘겨지겠고
- 채찍에 맞고
- 총독들과 왕 앞에 끌려가고
- 형제들에게 배신 당하고
- 사람들에게 미움 받고
- 박해 받고
- 강제 추방 당할 것이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종말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셨다(마24:4-14). 이런 징조들은 다음과 같다.

- 미혹
- 전쟁
- 전쟁의 소문
- 민족간의 대적
- 기근
- 지진
- 박해
- 죽음
- 모든 민족에게 미움 받음
- 배교
- 믿는 자들에게 배신 당함
- 믿는 자들에게 미움 받음
- 거짓 선지자
- 사랑이 식어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14절)”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잠정적인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
